

공공도서관 1000개 시대... 장서 수 1억권 돌파

2016년 공공도서관 1000개 시대가 열린다. 총 장서의 수도 1억 권을 돌파하여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의 장서 수는 1.99권이 된다.

이는 올해, 전국 공공도서관에 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20만여 권의 장서를 확충함으로써 가능해진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숙연)와 함께 지난 24일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의 2016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28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17개의 시도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을 토대로 수립해 제출한 2016년도 시행계획(안)을 지난 3월 1일(화)에 출범한 제5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올해 전국에 공공도서관 44곳이 새롭게 문을 연다. 이로써 공공도서관은 총 1019곳으로 늘어나, 1곳당 봉사대상 인구 수는 5만765명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양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된다. 문체부는 교육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도서관에서 함께 누리고 나누고 참여할

문체부 670억 투입, 올해 44곳 개설·책 620만권 확충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위해 1곳당 평균 약 50개 프로그램과 3개 이상의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며,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서관을 320개관으로 늘려 시민 7만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문학 특강이나 저자 초청 강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문정보 신문화 프로그램도 1곳당 약 8개를 개설하는 등 인문정신문화를 고요함으로써 공동체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한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대상 도서관을 총 500곳으로 확대하여,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 2곳 중 1곳에서 도서 대출과 반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인문정신문화 부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도서관에 총 8219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 중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분야에 가장 많은 비용인 6,406억 원(77.9%)이 투자될 계획이다. 재정투자 기관과 비용을 살펴보면, ▲부처별로는 문체부 874억 원(71.9%)과 교육부 104억 원(8.6%), 국방부 85억 원(7%) 순으로 많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특별시 1,473억 원(31.1%)과 경기도 1,045억 원(20.2%), 경상남도 345억 원(7.6%) 순으로 많다.

한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올해는 17개의 시도 공공도서관에 사서 177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를 통해 국민 1만2000여 명당 사서 1명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도서관은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서교사를 18명 증원하는 등 정담인력 총 5,670명을 배치한다. 학교운영비 대비 자료구입

비 편성 비율도 3% 이상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대학도서관은 전국 대학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해외학술 데이터베이스(DB) 27종을 국가적 차원에서 일괄 구독하는 대학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학술정보 기반을 확실히 확충할 계획이다.

국군장병을 위한 병영도서관에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년보다 8억 원이 늘어난 총 84억 원을 투자한다. 이 중 7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중대급 부대 13,140곳에 각 60여 권의 진중문고 등을 보급한다. 특히, 문체부가 국방부와 함께 지원해오던 '독서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대를 기존 150개 부대에서 200개 부대로 확대하여 국군장병들의 정신을 살찌우는 독서문화를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2016년도 시행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도서관이 지역의 정보와 지식의 거점, 문화의 마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주소리축제 우승 타악듀오 벗 프랑스 '바벨메드 뮤직' 서 공연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제2회 '2016년 바벨메드 뮤직'에 참여해 소리축제와 한국 음악 및 연주자들을 소개했다.

조직위는 '2015 소리프론티어' 우승팀인 '타악듀오 벗' (장구와 양금 악기로 구성)을 이곳 쇼케이스 무대에 세워 관람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독일 유네스코위원회 자문 겸 감독인 버그은 타악듀오 벗의 추후 섭외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이처럼 한 나라의 단일 음악축제 경쟁 프로그램 우승자가 이곳 쇼케이스 무대에 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이번 바벨메드뮤직 참가는 소리축제가 세계 시장의 중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타악듀오 벗이 이 무대에서 자신감을 얻고 세계무대에서 우리음악으로 세계인을 매료할 수 있음을 배운 계기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벨메드 뮤직은 축제 관계자, 음반 기획자, 아티스트들이 한 곳에 모이는 대형 월드 뮤직 마켓으로 공연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번 공연에는 23개국 31개팀의 쇼케이스가 진행됐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댄스공연 선포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는 오는 4월 2일 전주중앙실업광장 야외무대에서 '청소년들이터 Freeway'의 첫 일정으로 청소년댄스공연을 선보인다.

'청소년들이터 Freeway'는 공연예술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대의 장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5, 6, 8, 9월 첫째 주 토요일 4~6시에 펼쳐지며, 밴드·보컬·국악·프리웨이 페스티벌 등 매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공연의 무대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211-7401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문체부, 벤처기업에 필요저작물 지원

문화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저작물을 창조자원으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된다.

지난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중),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과 함께 문화창조벤처단지(Ca) 16층 비즈니스 콘퍼런스 룸에서 문화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유·공공저작물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유·공공 저작물에 대한 소개와 활용 사례 발표, ▲위원회와 정보원이 창조지원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 ▲콘텐츠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에 대한 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동안 문체부는 공유·공공저작물을 수집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 왔다. 그 결과 2015년 공공누리(www.kogal.or.kr)를 통한 공공저작물 개방 건수가 500만 건이 넘어섰으며,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의 공유저작물 다운로드 건수도 약 200만 건에 달하는 등 저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저작물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기업과 개인이 저작권 걱정 없이 창조자원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유·공공저작물의 제공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저작물의 실수요자인 문화벤처기업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저작물 분야를 확인하고자 관련 설문조사를 병행해 실제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해당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저작물 확충 지원 사업과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로 확보하여 기업들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진안 도토리 청자가마터도 문화재 지정 추진



진안 진흙가마 항공사진



진안 진흙가마 근처 벽돌

호남서 가장 이른시기 조성... 청자 발생·전파과정 규명 중요 유적

진안군은 지난 31일 도토리 중평 청자 가마터에 대한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진안군 성수면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는 최근 호남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가마로 알려지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유적이다.

일찍이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의 존재와 중요성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유적에 대한 조사나 보존 방안은 미려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3년에야 비로소 문화재청의 긴급 발굴조사 지원을 통한 최초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한류 기회 확대에 적극 나서고 향토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에 대한 조사와 보존 방안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국립전주박물관의 협력과 군비(2,000만원) 투입을 통하여 유적의 범위와 성격 규명을 위한 2차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2015년 10월 문화재청 국립확보를 통한 3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에서는 진흙가마 1기가 조사되었고, 추정 벽돌가마와 진흙가마 각 1기도 확인되었으며 초기청자를 비롯하여 도자기를 구울 때 쓰였던 그릇인 갑발, 가마의 축조재료인 벽돌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조사된 가마와 출토유물로 볼 때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는 후백제에서 고려 초기에 청자를 생산했던 가마로 추정되며,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벽돌가마와 초기 이후 청자를 생산했던 진흙가마의 흔적이 모두 확인되고 있어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과 전파과정을 규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문화·관광 콘텐츠 우수 아이디어 공모

문체부, 대상 4500만원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관광 콘텐츠 투자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기획한 아이디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모전 참여자가 홍보와 마케팅, 사회 공헌 활동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문체부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2명에게 공모전 우승상금(대상 500만 원, 최우수상 300만 원)과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각각 4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 자금을 준다. 그밖에 입상자 8명에게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문화·관광 콘텐츠 투자사업 아이디어 및 우수 아이디어' 기획안을 작성해 5월 31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6월 15일에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진행해 최종 2명(팀)을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2명(팀)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http://www.phislab.com/> 2016년 4월 1일

<p>▷쥐띠 46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이 잘 되지 모임을 갖거나 함께 일을 도모하기에 좋은 운이다. 80년생: 경거망동이 삼가라. 72년생: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라.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정념이 따른다.</p>	<p>▷소띠 46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나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주의하라. 81년생: 식욕이 있으나 식사 약속을 하거나 모임을 갖는 것도 좋다. 73년생: 중요한 일이나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68년생: 평소 애어려워 하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p>	<p>▷호랑이띠 50년생: 손아래 사람의 말에 귀는 기본이다. 62년생: 반질반질의 운세다. 74년생: 지금의 형세에만 집중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라. 86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만한 일이 발생한다.</p>	<p>▷토끼띠 51년생: 처음에는 서로 좋으나 후반에는 사이가 멀어진다. 63년생: 먼저 베풀어야 말이 없다. 75년생: 입에 쓴 말이 목에는 좋은 법이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87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 발생한다.</p>
<p>▷용띠 5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화합이 예상된다. 86년생: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76년생: 커다란이 쫓지 못하여 물이 차지는 때나 유의하라. 88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상의 도움을 받아라. 쉽게 해결될 것이다.</p>	<p>▷범띠 33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이 잘 되고 뜻이 잘 통하는 좋은 운. 69년생: 인덕이 따르니 침든일이 있어도 도와를 사람이 나타난다. 77년생: 처음에는 고난이 따르나 후반에는 풀리니 걱정하지 마라. 89년생: 좋은 운이 도래했으나 열정과 진취성이 가지고 행하라.</p>	<p>▷말띠 56년생: 좋은 문서를 알게 되거나 계약을 하기에 좋겠다. 68년생: 적은 일은 좋은 결실이 따르니 욕심을 부림다면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76년생: 중요한 판단이나 결정은 타인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90년생: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므로 뒷사람의 도움이 있다.</p>	<p>▷양띠 56년생: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87년생: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편안하지 않은 운. 78년생: 금전운은 좋으나 건강을 조심하고 병중은 초기에 디스라라. 91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나서지 마라. 자칫 원망을 듣게 된다.</p>
<p>▷원숭이띠 56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제약받을 일이 생기니 대립하지 말고 순응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89년생: 시기를 단하거나 손재수가 따른다. 80년생: 부부나 연인사이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운. 92년생: 실물수가 있으니 중요한 물건은 잘 보관하라.</p>	<p>▷닭띠 5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89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나 시달림의 관계에 주의가 필요하니 유의하라. 81년생: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따르니 결국 풀린다. 93년생: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거나 진행 하기에 좋은 운이다.</p>	<p>▷개띠 46년생: 건강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58년생: 도구나 다룰때에 지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 70년생: 매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2년생: 동기반과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돼지띠 47년생: 시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라. 59년생: 좋은 인게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한 운이다. 71년생: 손아래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언행을 삼가라. 83년생: 세 명은 분량이 생기니 두 명이 움직여야 잘 해결될 것이다.</p>